

국제 경제 환경의 최근 변화와 우리의 자세

유장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국제 경제 환경의 최근 변화

최근, 국제 환경이 변화하는 모습을 아주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키워드(keyword)를 중심으로 변화의 방향과 우리의 자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세계화 또는 지구촌화(globalization)

우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를 아주 특징적으로 설명해주는 키워드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입니다. 이것은 한국어로는 범세계화 또는 지구촌화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범세계화라는 말은 너무 일반적이고 평범한 표현인데 반해, 지구촌화라는 말은 손세계가 교통, 통신, 그리고 정보의 확산이 너무도 빠르기 때문에 하나의 빌리지 즉, 마을이 되어간다는 뜻

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경의 의미가 과거와 같이 절대적이지 못하고, 시장도 하나로 통합된 단일 시장으로 움직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한 경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하나의 시장으로 보았을 때는 그 시장에서 제대로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기업들의 생산 시스템 자체도 범세계화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기호도 선·후진국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즉, 일류 상품이 아니면 선진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후진국에서도 팔리지 않는 소위 지구촌화된 하나의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범세계화의 작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8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1986년에 시작되어

1993년에 막을 내린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입니다. 그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배경이 바로 범세계화 또는 지구촌화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GATT라는 질서가 있었는데, 이것은 순세계의 경제 환경과 무역 질서를 탄탄하게 지탱해줄 수 있는 규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외 규정이 너무 많고 또 다루지 않는 분야가 너무 많아서 교역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순세계의 경제 질서도 균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범세계적으로 올바른 교역 질서 형성을 위한 규범을 제정한 것이 1986년도였습니다. 우루과이에 있는 폰타텔레스테라는 도시에서 140여 개국 통상 장관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제 GATT시대가 청산되고 새로운 체제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창설되었는데, 처음에는 4 년만 하기로 한 것이 연기를 거듭해 7 년만인 1993년 12월에 타결이 되었습니다. 1994년에 모로코의 마라케치라는 도시에서 140여 개국 통상 장관들이 다시 모여 세계 교역 질서를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해나가기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느껴 세계무역기구(WTO)를 창설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WTO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채택한 범세계적인 규범을 이행해나가는 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었습니다.

‘경제의 UN’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구는 1995년 1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이것이 범세계화 또는 지구촌화의 아주 단적인 추세입니다. WTO가 출범을 해서 지금까지 11 개월 정

도 지났는데, 활동을 보니까 명목상으로 기구를 창설해서 무엇을 해보자는 식이 아니라, 순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서 하나의 시장 또는 국경없는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모두 발 벗고 나섰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느낍니다. 그동안 많은 국가들이 WTO에 제소했는데, 그 중에는 해결된 것도 있고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재판소와 같이 너무도 엄격하고, 흑백을 정확히 가려주기 때문에 과거 GATT 시절과는 비교도 안됩니다. GATT 때는 선진국의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다보니 결국에는 막강한 국가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선진국이 유리할 때는 끝까지 밀어붙여서 실리를 따내는 식의 운영이 되어왔었습니다. WTO 체제에서는 약소국이 WTO에 제소해서 이기는 감각 놀란 만한 사례도 있음을 볼 때, 이것은 힘의 논리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공정성과 자유, 그리고 균형을 위해서 움직이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경제 규범의 이행 기관임을 느꼈습니다.

최근의 비근한 예로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자동차 협상 때 미국하고 끝까지 줄다리기를 했는데, 결국 미국이 우리의 자세가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WTO에서 흑백을 가리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오스트레일리아와 스웨덴이 WTO에서 한판 승부를 가렸습니다. WTO에 제소하면 그 나라 교역의 관행에서부터 국내의 경제 및 무역 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백일 하에 공개되는데, 원고도 피고도 WTO에 제소되므로 여간 자신있지 않으면 양측이 다 꺼릴 수밖에

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WTO까지 갈 필요없이 양자간에 어떻게든 해결을 보자 해서 타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반대였습니다. 일본은 세상이 다 아는 힘의 논리인 슈퍼 301조로 미국이 너무도 후려치니까 이렇게 당해서는 안되겠다 하여, 슈퍼 301조 자체가 WTO 정신에 맞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미국을 WTO에 제소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자동차 협상 이전에 미국과 행했던 SII 협상 결과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또 이것을 들고나와 결국, 일본도 WTO에서 끝까지 대결하면 별로 이로운 것이 없겠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WTO 제소를 기각하고 양자간 합의로 끝났습니다. 이와 같이 WTO의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WTO에서 서로 제소하고 양자의 모든 사안을 다 끄집어내놓고 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정도로 WTO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에 적당히 넘어가던 국제 질서는 아니며, 그렇게 되어야만 소위 지구촌화·범세계화 시대의 조류를 지탱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국이 自國에서만 장사를 하고 기업을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는 범세계화, 소위 다국적화되는 추세여서 이런 질서를 확실하게 구축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의 안정된 성장을 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런 질서가 서 있기 때문에 세계 주요 기업들은 소위 범세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막론하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나 지역이 있으면, 서슴지 않고 나아가서 자기의 생산망, 판매망, 점포망을 확장시킴으로써 그룹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화 또는 지역주의화(regionalization)

국제 경제 환경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단어가 지역화 또는 지역주의화(regionalization)입니다. 가깝거나 호흡이 잘 맞는 국가들끼리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한다든지 또는 지역협력체를 구성하는 추세를 말합니다. 이런 비근한 예가 유럽에서 15 개 국가가 구주연합체(European Union: EU)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1999년에는 통화의 단일화, 그 이후 정치의 통합화까지도 고려해보겠다는 아주 강력한 지역주의입니다. 북미 3 개국인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ASEAN) 국가라고도 불리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 그리고 브루나이의 6 개국이 모여서 동남아시아자유무역지대(AFTA)를 형성하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거의 허물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며, 2003년까지는 완전히 허물어버리겠다는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연합해서 CER이라는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지적인 자유무역지대들이 서로간에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NAFTA와 EU가 결합해서 북미유럽연합 자유무역지대를 형

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를 TAFTA (Trans Atlantic Free Trade Area)라 칭하고, 이제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지역주의를 형성하자는 것으로 의미있는 지역주의들끼리의 연계입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소위 미주 전체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화가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는 또 하나의 추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범세계화, 지구촌화와 지역화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상반된 추세가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국지적인 지역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범세계화를 깨뜨리자는 것이 아니냐 또는 그것이 어떻게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에서는 지역화가 결코 범세계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범세계화나 지구촌화를 가속시켜주는 기폭제(fire starter)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WTO와 OECD에서 나온 논문에서도 이것을 실증적으로 여러 가지 수치를 들어가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작은 지역에서 2 개, 3 개, 혹은 5 개의 국가들끼리 자유 무역을 해보니까 너무도 좋은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주권은 다 있습니다만, 국경이 허물어져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고 비관세 장벽도 웬만한 것은 다 철폐되어 경제에 관한 한, 한 국가의 시장과 같이 움직이니까 모든 경비가 대폭 절감되는 것입니다. 관세

이하 자체도 경비 절감이 되고, 그 외에 통관, 노동력의 이동, 자본의 투자 등이 그 지역 안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입지 선정도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고, 또 유통도 보다 커진 시장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등 구속과 규제가 없어지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내의 교역도 대폭 성장이 되었습니다.

결성한 지 2 년도 채 안된 AFTA의 1 년 된 시점에서의 평가는 역내 교역이 46%가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내 교역의 증가로 각국의 수출이 활성화되고, 수출의 증가로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국민 소득의 증가로 생산 투자가 증가되고, 투자의 증가로 새로운 산업이 개발되고, 새로운 산업의 개발로 수출이 증대되고, 수출의 증대로 국민 소득의 증가라는 선순환(善循環)의 과정을 벌써 1 년 사이에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경이 허물어지고 경제 행위가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 소지역주의 국가들이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것은 소지역에서 형성했던 자유 무역의 재미(실익)를 우리만 만끽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한 지역에 속해있는 A와 B라는 국가가 스스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있게 “우리 국가는 자유 무역으로 많은 재미를 봤어, 그러니까 당신 국가는 우리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리하고 한번 일대일로 자유 무역을 해서 이익을 같이 나누자”는 자유 무역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NAFTA의 멕시코는 칠레에, CER의 뉴질랜드는 멕시코에 자꾸 주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

유 무역 지역주의가 처음에는 국지적인 이기주의의 비슷한 심리에서 출발되었지만,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장벽을 터놓는 데 능동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범세계적으로 자유 무역이 확산되는 데에 큰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

이것은 지역화와 연관이 되는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입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으로부터 자유화의 압력이 오면, 여러 가지 핑계나 이유를 내세워 될 수 있으면 자기 시장을 열지 않는 식으로 대처해왔는데, 지금 그와 같은 분위기는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장을 자유화하지 않는 보호주의 국가일수록 손해를 본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로서 일본을 많이 듭니다. 지금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80년대만 해도 보는 시각이 하나였습니다. “일본 경제는 막강하여 미국을 능가한 세계 1등국이 될 것이며, 수 년 내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 일본사람들 대단하다”라는 찬사 일변도였습니다. 만일 그때 일본이 이러한 세계의 변화를 빨리 읽고 적극적으로 대세를 활용했다면, 지금은 아주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 경제는 저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의로 해석해서 저조이지, 이제 일본의 상승세는 완전히 지났고 일본 경제 전반

이 급속도로 하강 국면에 들어갔으며, 문제는 어느 시점에서 일본주식회사(Japan Corporation)가 파산 선고를 낼 것이냐”라고들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서방 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마이 겐니지같은 일본 내의 학자도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잘 살려고 하고 다른 나라에게는 과감히 문을 열지 않는 너무 폐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나라는 이와 같은 세계의 대세를 거스르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빨리 느낀 나라는 소위 경쟁적 자유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들이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모든 시장을 빨리 열수록 싱가포르의 장래가 보장된다고 보고 거의 100% 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NAFTA 회원국인 멕시코는 경제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못한 개도국 중의 개도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것이 멕시코가 작년에 선진국의 모임인 OECD에 과감하게 가입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GNP 상으로도 우리보다 형편없이 뒤떨어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OECD에 가입한 것은 자유화 정책 방향이 바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살리나스 대통령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경제 발전에는 큰 공적을 남겼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말에 관세를 자발적으로 대폭 인하하였고 외국의 對인도네시아 직접 투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로 선진

국의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도 풍부하고, 땅도 많고, 노동력도 비교적 풍부하고 저렴한 데 더해 규제의 철폐가 큰 인센티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면서도 아직 규제를 풀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는 후진국임에도 규제를 풀고 자유스럽게 외국인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경쟁적 자유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있는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체코가 좋은 예입니다. 체코는 공산주의 국가로 있다가 지금 시장 경제로 전환한 지 몇 년 안됩니다만, 체코 지도자들은 시장 경제의 이점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매우 빠르게 잘 나가고 있는 중국 자체도 시장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보적인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앞에 사회주의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여놓음으로써 시장 경제는 하되 중앙 정부가 여기 저기 많은 통제를 하고 있는 데 반해, 체코는 놀라울 정도로 수출입은 물론 외국인 투자까지도 자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OECD 가입 신청서를 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1995년이 가기 전에 체코가 한국을 앞질러서 OECD 회원국이 될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OECD 멤버가 되고 안되고는 차치하고라도 체코는 자유화를 확실하게 선언하고 시행해나감으로써, 중화학 공업이 상당히 발전했으며, 또 의약품도 크게 발달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 경제화되면 대개 기존의 기업들이 문을 닫

거나 현장에서 사라지고, 외국에서 새로 전입되거나 새로 창업된 기업들이 더 빛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체코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이 이 새로운 사고와 질서의 고취로 인하여 놀라운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코의 경제 성장이 놀랍게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문제가 아주 대폭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경제의 성장은 역시 자유스런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여기저기 규제와 억제를 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빨리 체득한 나라들이 이득을 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트워크의 확산(proliferation of networking)

기업간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추세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세계가 하나의 작은 지구촌화 즉, 하나의 마을같이 되어가고 있고, 시장이 하나로 되고, 그 다음에 규제가 없어지고 자유화된다고 할 때, 네트워크의 확산을 통한 유통, 생산, 자원(부품) 조달, 정보, 통신 그리고 전문가의 공유, 노동력의 이동에 이르기까지 연계망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공생 공존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분야에서 세계적인 일급 두뇌가 있다고 할 때, 그 두뇌가 A 회사에는 없고 스위스의 B 회사에 있는데 스위스의 B 회사와 A 회사는 이미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A 회사는 그 두뇌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연계망 확산입니다. 국경

이나 제도가 너무 철저했던 단일 국가화나 범세계화 또는 지역주의화가 안 되어 있었던 과거에는 이것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의 시장을 잠식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세계는 공생 공존하는 하나의 시장으로 나가고 있다는 개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업들이 100%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티은행과 케미컬은행의 연계망 형성을 통한 고객과 점포망의 공유가 있고, 최근에는 다이와, 스미모토 거기다 노무라증권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대형 은행화되어 전세계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 언론 부문에 이르기까지 많습니다. GM社와 미쓰비시社間에 이미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고 또 미국의 유명한 국내외 방송망을 장악하고 있는 CNN과 CBS의 조직이 국내외적으로 연계망을 형성해서, 완전히 방송계의 제1인자로 군림하고자 하는 상호 짝짓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적 전문화(international specialization)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제적 전문화(international specialization)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국내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핀 하나를 만들어도 한 품목만 계속 대량 생산하여 전문화함으로써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국제적으로도 확

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시장, 하나의 지구촌 그리고 경쟁적인 자유화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생산할 필요가 없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한 두 가지를 전문화하겠다는 운동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미 홍콩과 싱가포르는 21세기에 금융 서비스의 메카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에서 유럽 시장을 능가하는 경제 발전의 역동성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으며, 유럽의 금융 시장이 제2급으로 전락할 날이 멀지 않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 시장이 굉장히 유리하게 될 전망이어서, 이 두 나라는 전세계 금융 서비스의 메카가 될 것으로 아주 선언을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은 멀지 않아 중국에 흡수되는 운명에 처해 있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홍콩의 지도자들은 중국도 21세기를 향하여 방대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자본의 흡수이며, 중국이 세계 금융 시장에서 신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무엇을 할 필요없이 홍콩이라는 금융 중심 시장을 100% 활용함으로써, 중국의 21세기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에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 지도자들은 중국으로 하여금 홍콩을 합병해서 완전히 사회주의 경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특징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중국에게 도움이 됨을 이해시키려는 전략을 몇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정보, 위성, 통신 산업은 미국이 메카이며, 전세계에서 일등을 결코 놓칠 수 없는 산업입니다. 물론 미국 내에 다양한 산업이 있지만 클린턴의 정책 기조에 나타나듯이, 미국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방법은 정보, 위성, 통신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절대적인 1위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독일도 벌써 전자 산업과 화학 산업에서 일등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이것을 정책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대만도 물론 정치적으로는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발전해 각종 부품의 조달창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소위 전문화 즉, 우리나라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계가 좁아져가고 범세계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해서만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내놓았을 때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 조금도 손색없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자세

전반적으로 이 다섯 가지 추세가 우리에게서 모두 좋은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범세계화 추세의 경우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고 어디든지 진출할 수 있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다 무너지는 세상이 된다면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대내 지향형 정책을 쓴다면 모르지만, 우리나

라의 경제 정책은 대외 지향, 전방위, 그리고 다각화의 3 기조- '대외 지향'은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나가서 기회를 발굴해내자는 것이고, '전방위'는 이념의 벽을 뛰어넘어 전방위의 대외 정책을 쓰며, '다각화'는 우리가 그동안 제품 위주였지만, 이제는 우리 인력이 우수하므로 서비스 쪽도 해보자는 기조 -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범세계화는 우리를 도와주는 추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둘째, 지역주의화는 현재 우리가 취약하지만, 이것이 또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연안 18 개국들로 구성된 APEC에만 참여하고 있고, 몇몇 나라가 모여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모든 장벽을 헐어버리는 소지역주의 자유 무역은 아직 구상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런 기운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기운은 국내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나라와 3, 4 개국이 모여서 장벽을 완전히 헐고 자유 무역을 해보자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 제안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싱가포르에서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만, 외부에서 한국은 일본과는 달라서 열을 받으면 최소한 다섯, 여섯은 내놓을 줄 아는 나라인 것 같으며, 호혜의 정신이 일본보다는 훨씬 앞서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시장에서 우리 한국을 보는 시선은 일본보다는 훨씬 우호적입니다.

그런 평가때문인지 일본에게는 그런 제안이

별로 없고 한국에 대해서는 그런 제안들이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국내 신문 사설을 보면, 우리 기업이라고 맨날 외톨박이로 단독적으로 나갈 수는 없으며, 우리도 연계 관계를 맺어 과감하게 경제를 자유화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믿을만하고 공통의 이익을 서로 향유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몇몇 국가들과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해봄으로써, 자유 무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대해서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100% 허문 적이 없는데, 장벽을 허무는 것이 우리한테는 일단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실증적인 분석에서는 모두 이익이지 손해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쟁적 자유화, 네트워크의 확산, 그리고 국제적 전문화의 추세들은 우리에게 생소하고 자신없어 하는 분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 의식과 기업인의 자신감이 잘 융합되어야 이 난관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인들은 과감하고 자신감있게 해냈기 때문에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국민 의식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타파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런 세계의 추세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빨리 국제화·세계화하는 것이 지상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보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외부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우선 무서워하고 차단하려는 심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화, 지역화, 경쟁적인 자유화, 네트워크의 확산, 그리고 세계적 전문화 추세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어 하나만은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설문 조사를 보면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일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외국어 특히, 영어의 조기 교육을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해야 하지만, 유치원부터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 어느 사회 저명 인사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전화 설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인사의 대답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가는 것입니까? 우리 국어를 그동안 이렇게 보호하고 유지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독립이 가능했던 것'이라는 전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국어를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감수성은 아주 다양하고 넓기 때문에 (연구 결과로 입증됨) 세살에서 열다섯살까지는 3 개 국어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어 능력이 대뇌의 오른쪽에 있는데 체계적으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일본어는 일본어대로 혼동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어서 세살에서 열다섯살 사이에 가르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는 스위스 모두 다국적 언어를 쓰고 있는데 이 국민들이 세계화의 첨병들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의 영어 조기 교육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가 아직도 40% 이상입니다. 이런 국민 의식이 우리가 타파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